

全國새마을 技術指導事例發表會盛了

〈9月 3日~4日〉

9個道團 事例發表에 參加

새마을 技術奉仕團 活動方向 再定立의 좋은 機會마련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새마을技術奉仕團中央會(會長: 金允基)는 제1회 전국새마을技術指導事例發表會를 지난 9月 3日과 4日 이틀동안 科學技術會館 대강당에서 새마을技術奉仕團員, 새마을指導者, 政府關係官등 2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幕되었다.

이날 金允基會長은 開會辭에서 「農漁村에 科學技術普及이라는 透徹한 使命意識을 갖고 國民을 爲한 科學技術을 創造 國民에게 奉仕하는 科學技術人이 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發表會를 통해 「새마을技術奉仕團의 活動方向의 定立과 그 推進方向이 提示되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은 激勵辭에서 「새마을運動은 우리國民의 行動哲學으로 昇華됨으로서 國際社會에서도 韓民族의 슬기와 底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고 말하고 새마을技術奉仕團員은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의 旗手로國民一般에게 合理, 能率, 創造의 科學精神을 심어주는 올바른 길을 가고있다」고 激勵하고 새마을 技術奉仕團活動을 繼續 支援하겠다 말했다.

새마을技術奉仕團은 1972年 4月21日 제5회 「科學의 날」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創團된 以來 全國 9個道團(1, 472名)에서 營農의 科學化를 爲하여 主業및 副業技術指導, 農家工產品製造技術指導, 環境改善技術指導, 科學技術啓蒙普及을 실시하여 農漁村 所得增大에 拍車를 加하는 事業을 펴왔으며, 特히 1科學技術者 1마을 結緣事

業을 해오고 있다. 科學技術者와 연고지 마을간 技術結緣을 통해 現在 200개 마을의 長期的 開發方案을 摸索, 指導하고있다.

이번 事例發表會는 그동안의 技術指導活動事業을 綜合分析하며 그결과를 가지고 農漁村의 所得增大에 寄與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發表內容은 2個의 特講(“새마을 運動과 科學技術” 洪문화 중앙전문위원, “새마을運動의 어제와 오늘” 송연중내무부새마을담당관)과 3個의 特別課題發表(“1과학기술자 1마을 結緣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고광철 서울대농대교수 “새마을 技術奉仕團의 効率的 운영및 育成方案” 전재기 경북대농대교수, “새마을技術奉仕活動에 있어서의 大學教授의 役割” 임문순 전국대농대교수)와 1個의 체험기(“科學技術 普及받아 자립터진 마련한 체험기” 신정식부인) 그리고 農漁村 새마을 運動에서 技術的으로 조금씩 指導해 줌으로서 훨씬좋은 能率을 올릴수 있었던 일의 標本들이 全國 9個道團 새마을指導者들에 依하여 發表되었다. “熱効率化를 爲한 무틀은방 設置와 그 效果”에 對하여 發表한 全北道團 양태연指導者와 “한우의 사양관리및 전염병 예방치료로 인한 육성효과”를 發表한 濟州道團 고해중 氏에게 各各 發表賞이 授賞되었으며 事例發表를 한 새마을指導者에게 感謝狀이 贈呈되었다.

發表會를 마치고난 會員一同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동막 모범새마을 시찰하였다.